

소설 『토지』에 나타난 한·일 문화 인식의 태도 고찰

— 『토지』 4부를 중심으로

김선하(전북대학교)

1. 도입

본고는 박경리의 『토지』 4부(10, 11, 12권)에 한정¹⁾하여 이 속에 나타난 일본과 조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는 그 방대한 길이와 작가의 창작 기간의 유례없음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의 문제와 장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주목받아 온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 이 작품이 소설적 재미 면에서 1, 2, 3부까지는 그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작품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소설적 긴장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는 소설 『토지』가 갖고 있는 세계를 지

1) 본고에서 논의의 텍스트로 삼은 것은 서울출판사에서 간행된 『토지』(1998)임을 밝힌다. 본고에 서는 그중 4부 10, 11, 12권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권수와 면수를 붙이는 방식으로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나치게 줄거리 중심으로 파악하는 면에서 오는 단선적 견해임을 표방하며 본고에서는 이 소설의 후반부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4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4부는 1930년 이후부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38년의 남경학살에 이르기까지를 그 시점으로 잡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은 대하역사소설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지만,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를 단순히 역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러한 시대를 가능하게 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작가가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그 동인을 ‘문화’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4부 곳곳에서 일본과 조선의 문화에 대한 작가의 폭넓은 인식과 견해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설이 인간 삶을 그리는 것이라면, 식민지 시대라고 해서 도식적으로 반일과 친일로 나누는 관점이 아닌, 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조선의 입장만이 아닌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의 입장도 그리려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야만 진실이 그려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작가는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작가가 그 큰 열개를 그려 나가는 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문화’라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문화’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문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음식도 문화이며, 의복도 문화이고, 주거도 문화이며, 언어도 문화이고, 습관도 문화이며, 의식도 문화이며, 사상도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 아닌 것은 인간 삶에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공기가 있지만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별 의식 없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듯이, ‘문화’라는 것도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낸 관습과 같은 것이기에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이라면 ‘조선인’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일본인’이라면 ‘일본인’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조선인’들은 그 시

대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갔을까? 그 개개의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다 그릴 수는 없다고 해도, 계층별로, 또 지식 수준별로, 또 나이별로, 또 사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시대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4부의 곳곳에는 이러한 시대 인식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단순히 내가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 중 하나이니까, 나라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다. 또 나라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라 찾기’라는 대의가 그 출발점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운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삶의 조건이 있었고, 그들은 물론 선택을 했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자기의 길이라는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선택을 하며 ‘나라 찾기’의 길을 갔다.

이것은 4부에 등장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도식화하여 본다면 그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의 나라에 태어나 팽창하는 군부의 세력에 동조하여 약소국인 ‘조선’을 침탈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갈등도 없다. 그들은 조선인을 무조건 지배해야 하고 조선인의 것을 약탈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인상적인 ‘일본인’인 ‘오가다 지로’는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인물이다. 물론 그에게 조선을 새롭게 보게 해 준 것은 다른 무엇보다 ‘조선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담론은 항상 소소한 일상의 담론과 일정한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가 확보된다. 이러한 점이 4부의 이야기를 다른 소설들이 그린 시대적 이야기로만 읽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4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커다란 이야기의 줄기는 ‘문화’라는 한 단어로 집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를 통해 4부를 읽어보면, 작가가 ‘토지’라는 소설 속에서 4부의 이야기를 어떤 자리에 위치시키고 싶어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구한말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소설 『토지』 속에서 매우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패망의 원인을 군사력의 열세나 세계 정세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

는 데서 그 연원을 찾고자 한다. 그 원인은 바로 ‘문화의 열세’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작가는 4부의 곳곳에서 일본은 ‘문화’가 없는 나라라고까지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고 서구의 선진국 대열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진입했고,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 침략을 단행했으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들은 이긴 것이 아니며 조선은 진 것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한다. 왜 그러한가 하니, 그들은 ‘문화’가 없었으므로 ‘칼’과 ‘총’으로 조선을 지배했을지는 몰라도 조선인의 어떤 것도—이것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바꾸지 못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4부 곳곳에서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동학 잔당’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구체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학’은 갑오농민전쟁이 끝나면서 일제에 의해 거의 소탕되었다. 그러나 ‘토지’ 곳곳에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여전히 ‘동학’은 살아남았고 일부 의식 있는 지주 세력은 그들은 자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들을 잇을 만하면 살아남아서 일본에게 우리가 바로 ‘건재’하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가 계속하여 이들의 활동을 그린 것은 그들의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인 활동이고, 그것은 일제에 의해 우리 것을 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조선인의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인이 갖고 있던 이러한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존심’, 제 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이 바로 경제적 침탈로 많은 것을 빼앗겨 피폐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만은 여전히 나는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화’의 힘은 우리 민족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지탱시켜 주었던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작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토지 4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전체적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하는 역할

과 나아가 시대 인식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의미 부여를 해 보고자 한다.

2. 『토지』에 나타난 한·일 문화 인식 양상

2.1. ‘토지’속의 일본 문화 인식

토지 4부를 여는 ‘서(序)’ 부분에는 토지 4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어디로 가든지, 특히 소도시나 소읍 같은 곳은 거의가 다 그러한데, **양과점을** 위시하여 **담배 가게, 이발소, 목욕탕**, 대개 그런 비슷한 업종은 일본인 경영이다. 다른 업체라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비교적 일인과의 접촉이 잦은 업종인 데다가 눈에 띄어야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기 때문인데,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적이라는 내용이며 눈에 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식민지 백성들의 하층 구조에까지 스며들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상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선의 산천과 사물과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보급이 된 지가 오래지 않아 그렇기도 하겠으나 다만 생소하다 하여 오는 거부감만은 아닐 것이다. 그 새로운 업종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들여왔고 누구의 손에서 경영이 되는가. 일본에서 건너왔고 일본인 그들에 의해 주로 경영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적개심이나 거부적 감정을** 쉽사리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 유교 사상에 길들여진 조선 백성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예절과 검소 그 격조 높은 선비 정신의 잔영이 있었을 것이요, 생략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는 세련된 미의식, 수천 년 몸매 배고 마음 깊이 배어 있는 안목에서 본다면 서양 것은 요란해 보였을 것이고 **일본 것은 저속하고 치졸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것, 일본 것이 혼합된 그 같은 새로운 업종을 이용하고 거래하면서도 못마땅했을 것이며 보수파들은 더더구나 **모멸하고 혐오하기도 했을** 것이다.

(10권 143~144면)

4부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은 일본이 들여온 새로운 업종인 ‘양과점, 담배 가게, 이발소, 목욕탕’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조선 사회 곳곳의

일상에 스며든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대부분은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들어와 사람살이의 격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거나 모멸하는 감정을 갖고 그러한 신문물을 대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이 들여온 문명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서술이 나타난다.

이발관에서 머리에 바르는 지쿠 냄새가 났다. 활동사진관 주변에서 올백한 건달들이 사이다, 라무네 등을 마시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곤 하는데 그들에게서도 지쿠 냄새가 났고 손가락 사이에 면도날을 숨긴 새로운 직종, 일본서 기술을 배운 수리꾼 그들도 지쿠 냄새를 풍겼고 이다바(요리사), 일인 상점의 점원 등, 쥐꼬리 만한 급료를 받는 부류의 청년들도 월급날에는 이발하고 목욕하고 지쿠 바르고 유곽을 찾는다. 일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곳곳에 세운 성곽과도 같은 거대한 청루, 그리고 보니 수리꾼, 유곽도 과연 새로운 직종이요 업체다. 칼날과 섹스,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일본의 수천 년 역사의 진수가 아니었던가. 목욕탕에선 ‘가오세켄’이라는 비누 냄새와 ‘우테나’ 크림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등바닥까지 회칠을 하는 일본 기생을 연상하게 한다. 목욕탕에서 언제나 그들 일본 기생을 볼 수 있었다. (10권 14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그것은 근대로 명명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 섞여 들어온 일본의 문물은 저급한 것들 위주였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나아가 이것은 일본의 문화 전체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되며 일본 문화는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칼날’과 ‘섹스’로 귀결되는 것이라고까지 단언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규정하는 언술로서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탈하고 나아가 조선적 문화를 말살하며 저급한 물질 문명만을 조선에 이식시키려 했던 일본에 대한 문명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는 언술이다.

4부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조찬하²⁾’이다. 그는 친일파의 거두라 할 수 있는 조병모 남

2) 조찬하 : 친일 귀족 조병모의 둘째아들. 완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자의식이 강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임명희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호감을 가졌으나, 형 조용하의 비인간적인 소유욕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된다. 이후 독일하여 일본인 여자 노리코와 결혼한다. 형 용하와는 달리 차분하고 이타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자신은 일본 귀족이 된 지금도 친일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용하가

작의 차남이며, 그의 형 ‘조용하3)’는 친일파이며 속물이다. 이러한 집안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는 경제적 풍요함 속에서 외국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이룰 수 없는 사랑(형수에 대한 연정)에 대한 반발로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에게 두 문화를 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작가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로 하여금 일본 문화의 특성을 언술하게끔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설정으로 기능한다.

찬하는 불빛이 명멸하는 밖을 바라본다. 그때 오가다에게 응수하지 못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증얼거린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비명 당신의 실망이 아직은 삼나무같이 곧고 가을 하늘같이 청량하며 죽순의 가장 연한 부분같이 순수하오. 왜 그런지 아시오? 물론 당신의 천성이 큰 몫을 하고는 있어요. 하나 **일시에 피고 일시에 지는 뱃나무를 숭상하는 국민성** 운운한다면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당신 같은 코스모폴리탄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소. 나는 **일시에 피고 일시에 지는 뱃나무, 그 당신네들 국민성에서 세푸쿠(배 가르는 것)를 연상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배를 가를 때 솟구치는 피는 왕왕 피가 아닌 물일 것이란 착각을 하게 되더군. 의병장의 목을 쳤을 때 흐르는 그 끈적한 피를 당신들 뱃꽃이나 하라키리(배 가르는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한일합병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였소. 특히 늙은 유생들은 목매어 죽고 절실히 죽고 우물에 빠져죽고 당신들이 볼 적에 결코 아름다운 죽음은 아닐 것이오. 그러나 그것에는, 네,

자살하자 형의 사업을 물려받으며,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용하 유산의 일부를 임명희의 위자료로 내어놓는다. 오가다의 아들 쇼지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형수인 임명희에 대한 감정 때문에 고심한다. 오가다와 쇼지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만주 방면으로 여행을 떠나게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닌다. - 임우기·정호웅 편, 『토지』사전, 숲, 1997, 545면.

- 3) 조용하 : 친일 귀족 조병모 남작의 장남이자 대사업가이다. 명희가 조용하와 처음 마주쳐 그가 입은 험거운 회색 양복과 흰 살결을 보고 첫눈에 그의 냉담함을 간파했을 정도로 차가운 의모를 지녔다. 철저한 귀족주의자이며, 세지에 능하고 비정한 타산가이다. 명희의 미모와 그녀를 사이에 둔 동생 찬하와의 경쟁심으로 인해 본처와 이혼하고 명희와 재혼한다. 명희와의 재혼 후 명희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과 집착을 보인다. 동생 찬하의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았다는 죄의식과 경계심, 질투가 섞인 복잡한 갈등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즐긴다. 명희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폭군적인 잔인함과 독점의 대상으로 대한다. 흥성숙과 추문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명희의 이혼과 가출로 더욱 냉소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폐암을 선고받고 자살한다. - 임우기·정호웅 편, 앞의 책, 544면.

죽음의 참뜻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요. 죽음이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 끔찍하고 추악한 것, 당신은 영혼 속의 신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리얼리스트라는 말을 했었소. 그러나 재차 말하거니와 **죽음은 꽃이 아니며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바로 현실, 주어진 현실을 넘어가는 일ियो.** 출전하는 남편의 투구에다 향을 사른다든가 여자도 순절하는 데 유방을 찌르는 그 형식 이라든가 조그마한 명분 때문에도 칼날을 세우는 당신네 민족의 관습은 바로 벚꽃의 낙화를 선망한 결과 아니겠소? **죽음의 고통 죽음의 추악함, 코 막고 눈 감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착각으로 공포감을 추방하는 거요.** 그렇지요. 당신네 군국주의는 로맨티스므로 무장돼 있소. 로맨티스므는 허됩니다. (10권 143~144면)

위의 내용은 ‘조찬하’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인 ‘오가다 지로⁴⁾’를 떠올리며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다. 그는 ‘오가다 지로’가 일본인이기에 그의 앞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또 당대를 살아갔던 지식인으로서 일본 문화에 대해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일본인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벚꽃’의 속성을 들여다 보면 된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國花)로서 일본인들 모두가 선망하는 꽃이다. 그런데 이 꽃의 특성이 바로 ‘일시에 피었다’ ‘일시에 진다’는 것이다. 조찬하는 여기에서 ‘죽음’을 ‘미화(美化)’하는 일본인의 국민성을 읽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푸쿠’라는 의식도 일본인의 ‘죽음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말한다. 그들은 ‘죽음’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미화한다⁵⁾. ‘죽음’을 미화함으로

4) 오가다 지로 : 작은 머리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몸집의 소유자로 학구형의 인상. 식민지 현실에 대해 동정적이며 코즈머폴리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 투명한 로맨티스트이며 이상주의자이다. 계명회사건과 간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 학생들을 도와 주었던 인물로 선량하고 순진한 위인이다.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지만 자신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괴로워한다. 일본, 한국, 만주를 떠돌며 유인실과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갈등을 체험하는 등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 임우기·정호웅 편, 앞의 책, 510~511면.

5) 일본인은 벚꽃을 사랑하며, 무사도를 사랑한다. 명예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무사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 하라카리는 중세부터 시작되어 하나의 법도로 간주되었다. 무사도에서는 의리를 중시했다.

써 그들이 얻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의 추방이다. 그러나 진실에 가깝게 말한다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모두 살고자 하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죽음을 숭상하게 만든다. 그들이 일시에 피었다 지는 ‘벚꽃’에 찬탄하는 것은 그들의 국민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남을 대할 때도 드러난다. 남을 죽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 팽창 정책 일변도로 흐르게 된 것도 그들의 국민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일본인들 중에도 ‘오가다 지로’와 같은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조찬하’도 일면 긍정한다. 그들은 ‘흰 백합’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이다. 논의는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확대되며, 이는 여러 등장 인물들—조찬하, 유인실⁶⁾, 제문식⁷⁾, 오가다 지로 등—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그런 소수를 제외하면 일본 민족의 긍정적인 면은 감상이요. 따라서 일본 군

<의리>라는 것은 원래 <의>에서 파생된 말이다. <의>에 대해 에도 시대 후기 유명한 무사 하야시 시헤이는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결단력이다. 도리에 맞게 결단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 의이다. 죽는 것이 옳으면 깨끗이 죽을 것이요, 싸우는 것이 옳으면 주저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무사도는 벚꽃에 흔히 비유되어 벚꽃이 일본민족의 꽃이 되었던 것이다. - 일본문화연구회 편, 일본과 일본문화, 불이문화, 2003, 46~51면. < 이러한 언급을 통해 볼 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아름다운 행위라고 간주해 온 것은 일본 문화 속에서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6) 유인실 : 유인성과 유인경의 동생이며, 명희의 여학교 제자이다. 일본식 이름은 히토미. 낫날이 날카롭고, 흠어지고 알맞게 짙은 범눈썹을 가져 소녀라기보다 소년 같은 모습이다. 자의식이 강하고, 신학문을 접한 여성으로 조국의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계명회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집행 유예로 출감한 후 야간 수예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다. 일본인 오가다와 사랑에 빠지지만 조국의 현실과 이민족 간의 정신적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뇌한다. 오가다에게 순결을 바침으로써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 갈등에서 벗어나지만 끝내 조국을 배반했다는 자괴심은 벗어버리지 못한다. 도쿄에서 남몰래 오가다의 아이를 낳고, 조찬하에게 양육을 부탁한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 운동 조직에 가담한다. - 임우기·정호웅 편, 앞의 책, 515면.
- 7) 제문식 : 조용하의 대학 시절 친구이며, 조용하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조용하의 성미에 언더리를 내면서도 그를 이해하며, 정확한 판단으로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반일 분자이며 리얼리스트인 이 인물은 천재적이고, 표면무상한 모습으로 흥미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절대 한문도 손해보지 않는 현실주의자이며, 악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임우기·정호웅 편, 앞의 책 참조

국주의는 센터멘털리즘으로 무장된다, 그레야만 옳을 성실소. 당신은 센터멘털이 호도(糊塗)에 지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을 부인 못할 겁니다. 현인신의 사상이 그렇고 벉꽃이 그렇고 조그마한 명분 때문에 배를 가르느 무사, 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며 쓰러지는 병사, 당신은 그 기만에 구역질을 느끼지 않소? 그런 등등의 일을 미담으로 꾸며서 감상이라는 설탕을 발라서 당신네 일본인은 그것을 받아먹고 자랐다는 생각을 해보았소? 당신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신이 빛났다고 내가 생각한 것은 천주교 교도들의 저 유명한 나가사끼의 순교요. 적어도 그것은 진리에 접근하려는 의지였으니까요. 자아, 그러면 일본 민족의 민족성이 떠오를 것이요. 창조적 능력이 회박하다…… 창조는 진실에의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상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없고 당신들 가난한 문화를 떠받친 것은 소수의 로맨티스트,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그것도 차원은 낮지요. <중략>

창조적 능력이, 능력이 회박하다 했지요. 그것은 개개인이 약하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인자(因子)가 영성하다 할 수도 있을 게요. 자연의 원리는 약하면 모이게 되는 거요. 생존의 본능이지요. 저 초원의 얼룩말이나 암벽을 타는 산양을 예로 들 수 있을 게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 그쳤으나 인간은 모여서 힘을 가지면 약육강식의 맹수로 변하지요. 개개인은 양일지라도 전체는 맹수로 변하는 거요. 감상이나 낭만은 쉽게 전체의 합리주의 공리주의로 변신한다. 그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게요. <중략>

당신들은 리얼리즘에 접근한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모노가타리』를 매우 귀한 것으로 모셔놓기는 하나, 일연의 『삼국유사』의 세계에는 아득히 미치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과 신비, 우주적인 것이 혼연일체가 된 높고 아름다움에 비하면 『겐지모노가타리』는 인간 잡사, 인간 정사의 나열이며, 귀신도 척척하고 밑바닥에서의 맑음이 없어요.(10권 150~152면)

“중국에서, 만주에서 연해주, 미국, 또 일본 내에서 조선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독립 투쟁, 당신네들의 야만적인 탄압은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거듭되는 학살은 당신네들 공포의 표현입니다. 당신네들이 용기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닌 잔인성이예요. 어처구니없이 미화된 세푸크[切腹]에서 난 그것을 느낍니다. 잔인성, 길들여진 잔인성 말입니다. 일본인의 본성이 잔인하다는 게 아니예요. 역사적으로 길들여진 잔인성이란 것이지요. 그러면 왜 길들여졌는가, 반문하게 되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용기, 그것이 애매해지지요. <중략>

자살도 가지가지인데 배를 갈라서 내장이 쏟아지는 죽음, 생선, 산짐승, 동물의 경우를 두고 생각할 때 내장이 나오는 것은 죽음 후의 일이지요.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에게 가장 더럽고 추악해 보이는 것이 내장이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 죽는 방법은 그래서 가장 추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의식화(意識化)하고 미화하는 이유가 뭐죠? 그야말로 야만적이며 그로테스크한 것을 아름답고 숭고하게, 따라서 사람에게 틀림이 없는 천황이 현인신(現人神)도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치전도, 전도된 진실에 순치(馴致)되어온 일본인은 비극이라는 감각도 없는 채 비극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약탈의 도구며 장치예요. 보다 높은 곳을 향하는 이상이나 고매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도구 장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당신네 나라에 사상이 없는 거지요. 당신에 나라에 사상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빈곤한 것도 말예요. 민족주의도 없구요. 애국이라는 말을 빌린 공범 의식, 당신들의 애국심은 공범 의식이지요. 유일하게 아름다운 죽음이 있었다면 도회령에 의해 순교한 나가사키의 천주교도, 그들의 죽음뿐일 거예요.”(11권 293~294면)

“노쇠한 청국, 국내 사정이 엉망으로 돼 있는 러시아를 물어뜯은 것은 전통적인 그 칼과 황도사상. 그러니까 칼은 힘으로, 황도사상은 명분으로 둔갑한 거지. <중략> 국민이나 실력자나 서로의 지분(持分)을 생각하면서 멀쩡한 얼굴로 천황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거든. <중략> 눈 깜짝할 새 선회하는 일본의 특성이 야말로 황당무계한 것도 진실이 되며 진실에 대한 고뇌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뜻에서 사상과 종교도 부재⁸⁾야. 차원 높은 문화 예술이 없는 것도, 그들의 음악이나 춤을 보아. 단조로운 몸부림, 힘의 폭발이 없는데 칼을 들면 잘 싸우거든. 한마디로 천황을 아라히도가미로 모시는 황당무계한 것도 방편에 불과한 건데,

8)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해박하고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준 '시바 료타로'도 그의 저서 『일본, 일본인 탐구 1』(시바 료타로 저, 고려원, 1995)의 1장에서 이와 상통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 <보편적 사상이 없는 나라, 일본>

일본에 있어서의 유교는 거의 학문—책—이었고, 민중을 길들이는 능력을 가진 보편사상(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회교 등)으로 전개되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17면)

- 「일본인은 사상이란 언제나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은 정말로 명언이다. 여하튼 일본은, 이를테면 유럽이나 중국등, 인도, 또는 중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상화되어 버린 그런 역사를 갖지 못했다. 이것은 큰 행운이다. 그런 주제에 사상을 동경한 다.(18면)

☞ 역자(譯者)는 '시바 료타로'의 견해를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일본을 일본이게 하는 이유, 역사적 배경, 사상사적 핵심은 전 국민을 조율하는 윌리나 이테올로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고 저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22면)

충성의 대상이 다양하다. <중략> 그들의 적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 자신의 동족이었다.” (11권 213면)

“현인신, 그 현인신으로 엮어두지만 사실 종교도 철학도 도덕도 아니거든요. <중략> 진실을 추구하는 치열함과 영원을 소망하는 그것 없이 과연 창조가 가능할까요? 일본인은 현세적입니다. 본시부터 유물론이지요. 그런 비정한 것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감상이며 쾌락주의입니다. <중략> 저질의 감상이 일본만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도의 차인데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11권 320~321면)

일본인들은 감상에 빠져 있으며 그러한 감상은 도처에서 드러난다.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인신(現人神)’을 내세우며 ‘천황’을 떠받드는 것이라든지, ‘세푸쿠’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며 죽어가는 무사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거짓이며 기만이다. 이것은 일본인의 감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러한 감상은 진리와 진실에의 접근을 가로막는다.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철저한 의식이 그들에겐 없으므로 그들에겐 진정한 창조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나약하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조선을 강탈할 때 조선 문화의 우수성⁹⁾과 신체적 우월함¹⁰⁾을 인정했다. 개인이 나약한 그들은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기를 좋아했고, 집단이 되었을 때는 맹수로 돌변하였다. 감상과 낭만에 빠져드는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쉽게 전체를 위해 개인을 바치는 구조¹¹⁾를 가능

9)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1883) - ‘과거 우리 나라는 조선에서 배워 오늘의 성장이 있었다.’ - 야마다 쇼오지·다카사키 쇼오지·정장연·조정달 지음, 샘기획 옮김, 근현대사 속의 한국과 일본, 돌베개, 1992, 88~89면.

10) 야마다 아이장의 「韓山紀行」(메이지 37년 5월 5일 저녁) - ‘조선인 노동자는 신체와 체력이 모두 우리보다 뛰어나다.’ - 야마다 쇼오지 외, 앞의 책, 91면.

11)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흔히 일본 문화의 특징 중 하나로 ‘집단주의’를 언급한다. - 집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을 돌릴 때는 <무라하치부(따돌림)>라는 처벌을 받았다. 일본사회에서는 집단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개인의 능력은 집단 속에서만이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집단의 규범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체면을 매우 소중히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하게 했으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극도의 군국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나아가 ‘조찬하’는 일본인들이 찬탄해 마지않는 『겐지모노가타리¹²⁾』도 그 의식 세계 면을 살펴보면 진실한 아름다움을 그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상의 잡사와 칙칙한 귀신의 세계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조용하’, ‘임명빈’, ‘조찬하’의 대화를 살펴보면 일본인의 의상과 색채에 대한 논쟁이 나온다.

“일본의 옷이나 색채는 상당히 그로테스크합니다. 특히 색채는 불투명하고 부피를 느끼지요. 검색, 검정, 갈색, 붉은 빛 그런 것이 주조인데 기타 빛깔도 순수한 색채는 없지요. 옷 형태에 있어서도 울동이 없습니다. 그들의 옷의 선은 거의 고정돼 있지요. 겨우 좀 흔들리는 소매도 거지 울동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앞머리는 밀어붙여 뒷머리만 모아서 뒤편쪽 쪽에 마개(상투)를 만드는데 맨들 맨들한 앞머리는 불모의 산같이 역시 고정돼 있는 느낌입니다. <중략> 또 있지요. 이빨을 검게 염색하는 것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고 그로테스크 하지요.”(10권 161~162면)

‘조찬하’는 일본의 옷과 조선의 옷을 비교하며 일본의 의상을 ‘딱정벌

직업은 급료를 받기 위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보다 큰 존재와의 일체화, 거대하고 유력한 것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노시는 종신고용제로 애사정신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 일본 문화연구회 편, 일본과 일본문화, 44면)

- 12)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쓴 헤이안[平安] 중기의 장편 소설, 총 54첩으로 되어 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유명한 책을 남긴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12세기의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세계의 어느 나라가 내놓은, 어떤 위대한 소설에 비해 뒤지지 않는 로맨틱한 연애를 다룬 걸출한 소설’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세계를 ‘인정의 세계’라는 독특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일본 문화가 ‘성(性)’을 다룬 ‘인정’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낮은 위치를 접하고 있는 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인들은 그래서인지 ‘성적 향락’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또한 인간의 영혼도 ‘온화한’ 영혼(니키타마[和魂])과 ‘거칠은’ 영혼(아라타마[荒魂])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이 맡은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두 개의 영혼은 모두, 저마다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선이 된다고 일본인은 믿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죄를 의식하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평가했다. - 루스 베네딕트 지음, 김윤식·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1995, 197~204면

레'에 비유한다. 색채나 모양이 그만큼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본인들은 옷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입으며 머리 모양 또한 고정시키고 이빨도 검게 염색함으로써 본 모습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옷은 색채가 불투명하고 또한 부피가 느껴진다.

찬하는 다시 말을 잇는다.

“**건물의 형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성은 석축을 높이 쌓아 올려 그 위에 다 앉히거든요. 사원 같은 것도 지붕에서 약간의 곡선을 볼 수 있는데 대단히 둔중한 느낌이며 일반 건물에 있어서 지붕의 구배는 **모두 직선입니다.** 촌락의 농가의 갈대 지붕도 역시 구배는 직선이지요. **여백이 없는 건축물, 여백이란 무슨 뜻이고 하니 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 주택은 대개 뜰이 없습니다. 뜰이 있는 주택들도 뜰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건축 구조에 있어서 현관이란 것 때문이지요. 현관이 뜰을 차단해버리거든요.” (10권 162~163면)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축은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건축에는 뜰이 없다. 현관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뜰을 차단해 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여백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일본 문화의 특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조찬하’는 해석한다.

“일본 민족의 단순성은 그 단순함 때문에 색채에 있어서나 선에 있어서 선이라기보다 선이 행방불명된 개칠의 상태인데 단순함에서 오는 욕구일까요? <중략>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저의 객관적인 눈, 그 말을 앞서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강국인 일본, 그 연유가 어디 있든지 약소국인 조선, 현재는 국가 자체도 없어졌습시다만 그 요인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약한 현상 문제도 말입니다. 진실한 뜻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문제도요. <중략> 복잡하면 쳐내고 단순하면 덧붙인다는,……바꾸어서 말하자면 결핍과 잉여 상태, 저는 애기의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결핍이 오늘 일본을 강국으로

만들었고 잉여 상태로 하여 조선은 망했다.” <중략>

“정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물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더욱더 강국이 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하여 몽치질 거란 말이지요. 개개인의 결핍은 전체를 풍요하게 하고 개개인의 풍요는 전체를 결핍으로 몰아넣고.”

“결론이나?”

“아닙니다. 강약의 척도를 양면에서 상반된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또 강약의 형태가 물질같이 오고 사라진다는 것, 물질의 시대와 정신의 시대가 명멸한다는 것¹³⁾이 저의 결론입니다.”(10권 164~166면)

일본 문화의 단순성, 그로테스크함은 그들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고 ‘조찬하’는 결론짓는다. 그런데 그들의 ‘결핍’은 그들을 몽치게 했고 개인적인 면에서는 ‘결핍’하지만, 전체로 몽치면 ‘풍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본인들은 더욱 ‘전체’로 몽치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약함을 상쇄하려 들 것이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일본은 더욱 군국주의의 힘을 강화해 나가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들이 모든 면에서 강하다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면에서 분명 일본은 강함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신’의 면에서는 약함을 여전히 면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아가 강약의 척도는 물질과 같은 것으로서, 지금은 물질의 시대가 지배하고 있지만 시대가 흐르면 정신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단순한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의 시각에서 재정립하고자 한 시도로 생각된다. 또한 일제 시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가진 이들은 조선은 언젠가는 제 문화를 찾고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13) 이러한 결론은 ‘토지’의 사상적 토대의 큰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동학 사상’과도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 사상을 연구한 노영필(동학의 생명사상 연구, 전남대 박사 논문, 2003, 101면)은 ‘동학의 사유체계는 개체와 전체의 유기적 환원, 중심과 주변의 유기적 전환, 멈춤이 없는 끊임없는 순환성을 담는 불연기연(不然期然)적 사유로 전개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인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에 제국주의의 꿈을 키우며 대륙을 향해 그 발판을 넓혀 나간다. 그러나 일본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 일변도로 나아가나 힘에 부침을 느낀다. 이것이 그들의 잔인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권필웅¹⁴⁾’은 판단한다.

“대저, 잔인성이란 용기 있는 자보다 용기 없는 자의 속성인데, 일본 민족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민족인 게야. 자고로 칼로써 다스려지는 백성이 그런 것은 당연지사, 한데 그들의 용감무쌍은 어디서 왔는가. 그 나라는 변혁이 없었고 삼나라, 가두어진 상태, 그 속에서 칼로 길들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역과 선택이 없는 용기란 오로지 복종하는 그것인 게야. 그런 틀 속에 있다가 틀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갈팡질팡 소심하고 왜소하고 가련한 모습, 마치 가뉘 길들던 새가 새장 밖에 나가도 날지 못하는 것처럼. 청일전쟁·노일전쟁, 그리고 만주사변하고는 다르거든. 그건 국지 전쟁의 성격으로 틀 안에서 싸운 거고…… 대륙에다 개미같이 풀어놓은 군대,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면 악귀로 만들지 않으면 어찌겠나.” (12권 281면)

일본인의 ‘잔인성’은 일본의 지리적 여건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민족성에서도 찾아진다. 소심함과 나약함을 그들은 ‘잔인성’으로 무장하여 벗어나고자 하며, 이후 일본인들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며 무수히 많은 자국(自國)과 타국(他國)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일본의 문화적 속성—죽음에 대한 미화, 그로테스크함을 미적인 것으로 보는 문화, 철학과 사상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4) 권필웅 : 1869년생. 학덕이 높은 운현 선생의 아들. 마흔이 넘은 나이이며 연해주에서 만주 일대를 무대로 독립 운동을 하는 지략가이다. 허름한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 속에 지혜와 열정, 용기의 영롱한 구슬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슬픔과 통곡을 안은 무서운 결의의 눈빛이다. 깡마르고 소소하고 투박스런 곳이 없으며 학자풍의 흰 수염을 훔날리며 너그럽고 유연했던 그의 부친 운현선생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에서 사상적으로 방황하기도 한다. - 임우기·정호용 편, 앞의 책, 460면.

2.2. ‘토지’속의 한국 문화 인식

작품 ‘토지’ 속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4부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림주구에 항거하는 민란도 수없이 있었지만 조선조 오백 년, 나라에서는 공전이라 하며 농민으로부터 땅을 걷어들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설사 걷어들었다 한들 결국 조선 백성이 경작하게 마련, 사유지의 경우도 땅문서라는 것이 애매 모호했으나 땅문서 이상으로 **윤리 도덕이 견고하여** 남의 땅을 도적질하는 일은 없었다. 항상 족하지 못했지만 마을마다 대개 객사라는 것이 있었고 여염집에 서도 한두 끼의 끼니, 잠자리를 거절하는 풍속이 아니었기에 **나그네는 있었으나 거지는 흔치 아니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천리 강산, 남의 땅으로 쫓겨간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 불운한 강산 거리거리에 거지들이 떼지어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일인들 왈 조선에는 웬 거지가 이리 많으나, 총독부에 가서 물어볼 일이다**. 땅을 약탈하여 배가 불러 터지게 된 동척에 가서 물어볼 일이다. **조선인은 게으르다, 어찌 게으른가 그것 역시 총독부, 동척에 가서 물어볼 일이다**. (10권 13~14면)

서술자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보며 왜 이렇게 ‘게으르고’, ‘더러운가’라고 말하지만, 실상 조선인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인가를 묻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기 이전까지 조선인은 그 누구보다도 ‘윤리’와 ‘도덕’을 알던 민족이었으며, 나그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할 줄 아는 미덕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음도 밝힌다. 그러므로 조선엔 일제 시대처럼 거지가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조선인이 게으르게 된 것 또한 일자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인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것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일제이며 ‘조선총독부’임을 서술자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조선의 영구적 지배를 위해서는 조선 문화에 대한 폄하가 필요했다. 그들은 조선이 오랜 역사와 문명을 지닌 나라임을 알았기에 조선 지배를 위해 무력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완전

한 지배를 하고자 했다¹⁵⁾. 이를 위해 조선의 문화를 뿌리째 부정하고 나아가 조선인들 속에 문화적 ‘열등감’과 ‘정체 의식’을 주입하고자 했다.

“방안에 요강을 들여놓고 긴 담뱃대 물고서 팔자걸음으로 길을 걷는 너희들 조선인은 도시 위생 관념이 없고 게으르다. 그 같은 민족성과 문명에 동떨어진 미개한 상태에서 언제? 백 년이 걸려도 안 될 발전을 우리 대일본제국이 실현시킨 것이다. 내 말이 틀렸느냐?” <중략>

“일청전쟁 무렵까지도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 아니었나!”(10권 95~97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제국주의 팽창 정책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조선과의 합방을 성사시킨 그들은 갖가지 명분을 끌어 붙여 조선 침탈을 합리화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들은 힘에 있어서 조선을 앞서 있었지만, 조선 민족의 지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끊임없는 의병 항쟁과 애국계몽운동 등 위로는 지식층으로부터 아래로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항쟁이 그치지 않았고, 이것이 드디어 1919년 3·1운동으로 발화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 노선에 변화를 꾀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의 지식층을 교묘하게 움직여 조선인 스스로 제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비판하게끔 유도해 나갔다¹⁶⁾.

15) 중세시대까지의 동양문화권 안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오랜 전통을 가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일본이 당면한 문제는, 군사적·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역사적 측면에서도 식민모국 일본이 한반도지역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조작하는 일이었다. <중략> 메이지유신 후, 특히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본격화한 180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연구가 갑자기 활발해져서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통사(通史)류라 할 수 있을 하야시(林泰輔)의 『조선사』가 출간되었다. 또한 ‘합방’을 전후한 무렵에는 일본의 어용학자들에 의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 나오고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이른바 정체·후진성론이 이미 성립되기도 했다. - 강만길 지음,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07, 234~235면.

16) 3·1운동 직후 폭탄세례를 받으며 부임한 총독 사이토오(1858~1936)는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친일과 양성책을 고안했다. 첫째, 일본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써 관리(官吏)를 강화한다. 둘째, 신명(身命)을 바칠 친일적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귀족·양반·유생·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들 사이에 침투시켜 친일 단체

위에 인용한 부분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잡혀간 학생 중 주동자 급인 학생을 심문하는 일본인 형사의 말이다. 그는 당대 제국주의 팽창정책의 한길로만 내닫고 있던 일본인들의 굴절된 의식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조선은 원래부터 자립하지 못한 나라였으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중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조선 지배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 백성들 속에는 오랜 동안의 문명국의 역사를 유지해 오면서 깊이 뿌리박힌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존 의식이 살아 있었다.

유교 사상에 길들여진 조선 백성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예절과 검소 그 격조 높은 선비 정신의 잔영이 있었을 것이요, 생략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는 세련된 미의식, 수천 년 몸매 배고 마음 깊이 배어 있는 안목에서 본다면 서양 것은 요란해 보였을 것이고 일본 것은 저속하고 치졸해 보였을 것이다.(10권 11~12면)

조선의 농민들은 선비 정신의 토양이에요. <중략> 양반 계급이 학문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하여 무학(無學)이지만 무식(無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예절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탱한다는 것을 알구요. 조선 백성들이 일본인을 향해 즐겨쓰는 말 중에 상놈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신분을 말함이 아닙니다. 예절을 모른다,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중략> 결코 일본은 끝내 조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11권 293~295면)

조선인들은 예절과 검소함, 격조 높은 선비 정신을 갖고 있었으며 생략

를 만든다. 셋째, 각종 종교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혀 이용화 한다. 넷째, 친일적 민간인에게 편익과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양성한다. 다섯째, 양반·유생으로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만들어 주고 이들을 선전과 민정정찰에 이용한다. 여섯째,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해 그것과 연계를 맺도록 해 매편화시켜 일본 측에 끌어들인다. 일곱째, 농민을 통해 조종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단체 교풍회·진흥회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주는 한편 입회권(수목채취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 강만길, 앞의 책, 34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는 세련된 미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조선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리얼리스트’였다고 ‘조찬하’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

고래로 조선인들은 리얼리스트였었다, 나는 긍정하고 민소. 그것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요 방법이니까요. 신비, 생명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본시는 신비주의요. 현실적인 민족적 기질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가장 깊이 파고 내려간 연유가 바로 그거지요. 신비와 생명에의 탐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창조요. 궁극적으론 창조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조선에 상륙하여 한 말 중에 무지몽매하여 미신이 횡행하는 나라, 무지몽매하다는 말은 사양해야겠고, 미신이 횡행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소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신도 하나의 창조이며 창조의 의지라 할 수 있지요. 그것을 긍정한다 하지는 마시오. 나는 지금 조선 민족의 저류를 더듬어보는 것뿐이니까요. 네, 조선 민족은 창조적 활성에 넘치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강한 개성을 지닌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소. 당신들이 항용 말하는 민족적 분열, 분열의 요인이 열성(劣性)에 있었던 거는 아니다, 그 말도 꼭 해야겠소. 문제를 뒤집어봅시다. 당신네들은 단결을 성취하였소. 배부른 돼지가 되었지요. <중략>

물론 조선에 있어서 한(恨)이라는 것도 추상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와비나 사비가 사라져가는 것이라면 한은 오는 것이요, 절실한 기원이요. 당신네들의 피를 물처럼 착각하는 것은 와비와 사비의 정신 세계 때문일까? 끈적끈적한 피, 그것이 한이요. 진실만이 창조를 가능케 하고 진실에의 의지만이 창조력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개체로서, 네, 개체로서…….’ (10권 150~152면)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분열을 좋아하고 미신이 횡행하는 나라라고 비판했지만, ‘조찬하’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창조를 이끌어낸 훌륭한 정신적 저류라고 파악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저급한 감상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리얼리스트로서의 기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진실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개개로서 자신의 진실을 추구해 가려고 했기에 이것은 때로는 다양한 사상을 낳았

다. 이것을 일본인이 보았을 때는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찬하’는 ‘미신’마저도 하나의 창조며 창조에의 의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조선의 문화의 특성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한(恨)’이라는 개념을 절실한 기원이며 진실을 끝없이 추구해 가려는 의지라고 파악하고 있다. 개개인이 이러한 진실을 추구해 간 민족이 바로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이 집단을 추구했다면, 조선인은 개체의 의지와 정신 세계를 훨씬 존중하는 문화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용하’와 ‘조찬하’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의상, 색채, 건축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그래 조선의 의상과 색채를 생각해 보았지요.”

“그게 뭐냐?”

“나비, 학입니다.”

“조선의 의상과 빗깔을 생각해봅시다. 구십 프로 이상은 흰색이며 나머지 색채도 거의 중간색이란 없어요. 모두 흰색이며 투명하지요. 그리고 옷의 형태로는 울동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선도 밀착되지 않은 직선에는 풍부한 울동을 허용하고 밀착할 수밖에 없는 곳은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것, 갓이야말로 아마 세계적 명작이 아닐까요?” <중략>

찬하는 다시 말을 잇는다.

“조선의 건축, 지붕의 경우를 보면 하늘을 향하여 치올라간 처마나 용의 머리 같은 용마름, 그 곡선은 참으로 완벽하게 공간에 존재하지요. 시골의 초가는 반대로 굽습니다. 땅을 향해 오무려져 있지요. 기와집 지붕에서 비상하려는 새를, 혹은 비룡을 연상한다면 초가는 땅에 뿌리를 박은 식물을 연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궁이건 성이건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 싸여 있다는 조선의 것과는 달리 의복이나 반자연적인 요소가 짙은 것이 일본입니다. 다음은 여백에 관한 건데 울타리가 없고 사립문이 없는 농가는 결국 집 밖의 땅이 여백이 된다 할 수 있고, 일본의 현관과 같은 성질을 띤 대문 사립문이 건물과 뜰을 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상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하한 형태로든 거기는 건물과 뜰이 공존하고 있지요. 성을 보더라도 적을 막는 것은 성벽이지, 즉 울타리지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석축에서 바로 이어진 성과 성벽 안에 있는 성 그 차이점에서도 우리는 여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비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선의 피조물, 사람 손에 의한 피조물엔 생명감이 넘쳐 있고 생명체를 보다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완벽하다는 것은 살아 있다, 즉 생명이 있다는 애깁니다.”(10권 161~163면)

‘조찬하’는 조선의 의상의 투명함과 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선’의 아름다움을 ‘살아 있음’과 연결한다. 즉 ‘생명’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학’에 비유된다. 또한 ‘건축’의 경우에도 하늘로 치올라 간 선이나, 땅에 뿌리를 두는 건축 정신을 이야기하며 조선 건축의 특징으로 ‘여백’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이러한 ‘여백’의 정신은 그 안에 다른 ‘생명’을 포함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하며, 생동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조찬하’는 이것을 ‘정신적’인 것이라고 명명하며, 그리하여 이것을 자로 재거나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국인의 미의식의 근원을 ‘부드럽고 밝은 온화한 색조, 작은 새들의 조용한 속삭임, 맑은 공기가 온몸에 스며드는 상쾌한 감촉, 그리고 숲과 들의 싱싱한 냄새,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침의 분위기’라고 파악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적인 형태미는 ‘공간을 침투하고 정복하는 미가 아니라 공간 속에 스스로 동화하려는 순응의 미’¹⁷⁾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즉 조선인들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리얼리스트였으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면의 성취에 그 궁극적 지향점을 두었던 신비주의자였다고 ‘조찬하’는 결론짓고 있다. 이것을 ‘높음’과 ‘낮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선인은 ‘높음’을 추구한 민족이고, 일본인은 ‘낮음’을 추구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양식적 지식인으로 나오는 일인 ‘오가다 지로’가 조선의 문화를 보는 관점이 소개되고 있다. 그는 그의 삼촌인 ‘겐사쿠’와의 대화에서 ‘소

17) 민주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상대계 4, 「한국인의 미의식과 예술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244면.

나무'를 '조선적'인 나무라고 명명한다. 그가 본 소나무의 조선적인 모습은 '인고(忍苦)'의 느낌이다.

“이건 느낌입니다만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구부러지고 비틀어지며 자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곧게 뻗은 소나무보다 구부러져서 자란 소나무의 풍치가 훨씬 좋다는 것은, 뭐 그런 탓도 아니겠습니까만 인고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시뻘건 땅에, 혹은 암벽 사이에서 비틀어지고 구부러져서 건디는 소나무, 그것은 바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이 아닐까요?”(10권 340~341면)

또한 이어서 조선인의 온돌을 매우 우수한 문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저는 온돌이야말로 가장 정결한 거처라 생각합니다. 의자나 침대 같은 것도 매일매일 갈래질하며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설령 커버나 시트로 덮는다 하더라도 안엔 먼지가 쌓이지요. 경험에서 알았습니다만 온돌이란 맨발로 밟으면 모래 알갱이 하나까지 발바닥에 느껴지니까요. 거울같이 매끄럽고 딱딱하여 차게 보이지만 여름 한 철만 기분 좋은 냉기를 가질 뿐, 앉으면 따뜻하고 아무리 비가 와도, 오히려 비 오는 날의 실내가 더 쾌적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문화 민족이며 온돌은 난방 작품치고 매우 우수한 것을 <중략>”(10권 340~341면)

나아가 그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누구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에 대한 상대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작품 도처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의 특성으로 강한 ‘생명 의식’을 말하고 있다.

“나라고 민족이고 간에 그거는 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겠소?”
(송관수¹⁸⁾의 말, 11권 45면)

18) 송관수 : 1883년생. 얼굴은 조그맣고 얼굴빛은 까무잡잡하다. 주먹깨나 쓰고 노름 솜씨가 대단하며 가끔 막일 풀팔이나 소달구질을 하는 두둑한 배짱과 정의감이 있는 사내이다.

“<중략>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담을 쌓아도 제발 내 앞만 가리는 이기주의자만은 되지 말아라 그 말인데, <중략> 자기 둘레만 깨끗이 하고 자기 식량만을 챙기는 그런 습성은 밖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자연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것을 이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초라해져. **우리도 살아 있다는, 살아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야.**”

(길여옥이 임명희와 나누는 말, 11권 89면)

“**한이 맺혔다, 할 때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빼앗겼든 당초 주어지지 않았든 지간에 결핍을 뜻하고, **한을 풀었다, 할 때는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서 결핍은 존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채워졌음은 존재하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 자체에 관한 것**이에요. <중략> 자연에의 접근 혹은 동화, 그건 생명에의 저항일 것입니다. 강력이 아닌 균형의 생명의 힘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중략> 오이씨 같다는 작은 것에서 생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가다와의 대화 속에서 유인실의 말, 11권 285면)

생명에의 의지, 생명의 힘은 우리 민족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지탱하게 했고, 이것은 개체로서의 모든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진실이기도 하다. 결핍을 느낀 모든 개체는 빼앗긴 것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결핍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한’이 ‘맺혔다’고 표현했고, 결핍이 채워졌을 때는 ‘한’을 ‘풀었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 비움과 채움의 과정 속에서 조선의 문화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마무리

이상으로 본고를 통해 『토지』 4부(술 출판사 간 10~12권)에 드러나 있

장돌뱅이였던 아버가 동학당으로 죽임을 당한 뒤 모친의 품팔이로 겨우 생장하면서 체득한 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동학에 참가한다. <중략> 이후 형평사 운동에 관계하며 동학 잔당의 중심 인물로 부산 부두 노동자 조직에도 일조하는 직업적 운동가로 활동한다. <중략> 한편 만주의 시골 지방을 떠돌며 행상을 하며 그곳의 독립 운동 조직과도 연결을 맺고 일한다. - 임우기·정호웅 편, 495~496면.

는 ‘한·일 문화에 대한 인식 태도’를 고찰해 보았다. 이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방대한 규모와 사상적, 철학적, 역사적 깊이에 걸맞은 새로운 읽기 방식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특히 『토지』 4부가 간행되어 나오기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작가가 그만큼 이 4부의 집필에 공을 들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작가는 1, 2, 3부에서 이어진 최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적인 시련과 성공담, 연애담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담고자 노력했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사적인 시각’의 확보를 시도했다.

‘토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가의 말처럼 ‘대지’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작가는 ‘소유’의 개념이 ‘토지’라는 말에선 연상된다고도 했지만, 4부와 관련지어 ‘토지’의 개념을 재규정한다면, ‘인간이 밭을 딛고 서 있는 곳’, ‘생명이 그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토지’는 역사를 초월하여 또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나 밭 딛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태초에 인간이 뿌리를 내린 곳이고, 생명을 배대한 곳이고, 생명을 키워 가는 곳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씨 뿌리고, 아이 낳고, 농사짓고 생계를 이어 갔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생존의 방식을 배우고 또 인간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전수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고에서 그 바탕에 전제하고 있는 ‘문화’의 원초적 모습이다.

섬나라 일본인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한반도에 자리잡은 조선인은 ‘조선만의’ ‘문화’를 만들었다. ‘문화’는 출발은 개인에서 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을 흐르며 그 민족 전체에게 내재화되어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4부를 통해 일제하 엄혹했던 시절, 일본의 군국주의는 팽창 일로로 치닫고, 조선은 일본의 병참기지화가 되어 가며, 조선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던 시절에 조선 민족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불모의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을 무엇이었을까?를 독자에게 그리고 작가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도달한 결론은 바로 ‘문화의 힘’이었고, 그 ‘문

화'란 바로 '정신의 위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인'을 버티게 한 것은 인간의 본원적 생명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 검소하고 예절을 지키며 소박함을 존중하던 조선 민족의 전래적 풍습, 나아가 물질적 결핍의 상태 속에서도 높은 정신적 문화를 이루어 왔던 저력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명국이란 물질의 문제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그에 걸맞은 정신의 문화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시대가 변주를 거듭하며 그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음을 독자에게 인식시켜 준다. 그러므로 『토지』 4부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는 다시 조선 민족의 해방과 정신적 문화의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며 독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박경리, 『토지』 10, 11, 12권, 솔출판사, 1998.

〈논문〉

노영필, 「동학의 생명사상 연구」, 전남대 박사 논문, 2003.

한승옥,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동학의 의미」, 숭실어문 15집, 1999.

〈단행본〉

강만길 지음, 『고쳐 쓴 한국 근대사』, 창비, 2007.

강만길 지음,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07.

김영, 『일본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2007.

루스 베네딕트 지음, 김윤식·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1995.

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시바 료타로 저, 『일본, 일본인 탐구 1, 2권』, 고려원, 1994.

야마다 쇼오지 외, 『근현대사 속의 한국과 일본』, 돌베개, 199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상대계 4』,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이상진, 『《토지》연구』, 월인, 1999.

이수룡, 『한국문화사론』, 삼영사, 2008.

일본문화연구회 편, 『일본과 일본문화』, 불이문화, 2003.

임우기·정호웅 편, 『《토지》사전』, 솔출판사, 1997.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1996.

최유찬 편, 『박경리』, 새미, 1998.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솔출판사, 1996.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홍윤식 편,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솔출판사, 2003.

〈Abstract〉

Consideration of recognition problematics about cultures of Korea and Japan in *Toji*—limited to Part 4 in *Toji*

Kim, Seon ha

The goal of this thesis - limited to volume 10,11 and 12 in part 2 of *Toji* written by Park Gyeongli - is to considerate of recognition problematics about cultures of Korea and Japan. Not only *Toji* is a very long story but also it took long time to write this story. Furthermore, it has been noticed because of dilemmas of the times and issues of genres. In other theses which are based on this novel, it is noticed that volume 1, 2 and 3 are so interested that we can't ease the tension, but after the volumes the tension gradually decreases. But that is a wrong thinking resulted from grasping the story when we focus on the outline. In this thesis 4 volumes which lead last half of the story are considered to disprove the wrong view.

Part 4 story is developed on the background of the period from

China-Japan War(1937) to NamGyeong Slaughter(1938). In historic novels the view of current trends has attracted our interest. But the things which are mentioned in this thesis are not considered in historic point of view about current problems. The main goal of it is finding out the basic reasons which made the situations of the time. The writer seeks for the reasons in the culture. Her wide cognitions and point of views about Korea and Japan culture are revealed in the whole Part 4. In part 4 lots of characters are appeared but the origin of whole story is integrated to “culture”. If it is read with view of culture, we can guess on what position she wanted to place the part 4 in the novel. The writer has her own deep belief about history. She figures out the history from Guhanmal to Defeat of Japan in the novel. And she tries to seek for the reasons of the defeat not from weak military force or changes of world situations but from more basic reasons, “Cultural Weakness”.

Especially, writing duration of part 4 is longer than any other parts. It is the proof of her best. In Part 1, 2, 3 she tried to put more precious meanings into the story over a family’s hardships, successes and love stories and she gained “cultural point of views” as one of the methods.

What is land? It is not an estate and territory as she said. She said we associate land with concept of possession. However, when it is rethought through part 4 it is valid that land is considered as the place of human standing and origin of life. The Land is the place where everybody stands beyond history and races. It is the place human beings have rooted, been born and been grown up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From then, they have sown, born, farmed and lived. Human beings have learnt surviving methods and passed down them on the bases of the land. It is the primitive configuration of culture that

is the premise of this thesis.

Island country, Japan has made their own culture and Korea have done so. The beginning of culture is from an individual but the culture is what are internalized into a race with time. How could Joseon people overcome the tough time under Japanese control- expanding of Japanese nationalism and fortifying of military-in the situation that nobody could look forward to future? The books asks the readers and the writer herself “what the power overcoming the tough time is”. It is said that culture is the answer and the culture is the great spirit.

Key words : cultures of korea, cultures of Japan, cultures weakness, Japanese nationalism.

이 논문은 2008년 12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